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과학연구 제3집(1999)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동·서협력체계 구축방안

엄정인*

〈요약〉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해양혁명(Marine Revolution)의 시대로 예견하고 있으며,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해양이 지닌 방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신관광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심이 얇은 연안, 섬과 섬사이, 해안 등은 미래의 공간자원으로써, 제2의 국토공간개발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국토개발구상(안)은 해양을 중심으로 U자형의 국토개발축을 구상하고 있다. 남해안축은 한려해상, 다도해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남해안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서해안·동해안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3면의 해안을 활용하는 관광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간 화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산발적·부분적 개발을 지양하고 해양관광벨트·산업관광벨트·환경생태관광벨트로 공간의 다원화 전략을 세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의 극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해안을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국제 해양관광 선도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며 영·호남 공동의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동·서화합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서론

관광산업은 국제화시대에 고부가가치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2000년대에는 관광산업이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연간 20억~30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관광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 남북한의 교류협력 분위기 도래와 중국이 한국을 자유관광 대상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국제관광산업 발전의 좋은 시기에 있다.

* 경상남도 문화관광국 국장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전 단계인 「21세기 국토구상(안) : 서해안축, 동해안축, 남해안축 개발」은 국토의 해안을 중심으로 U자형의 국토개발축을 구상하고 있다. 남해안 축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주도하에 한려해상, 다도해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동해안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3면의 해안을 활용하는 관광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특히, 국민의 여행행태를 보면 특히 하계의 경우 동해안 17.6%, 남해안 10.9%, 제주도 10.1%, 서해안 4.2%로 43%가 바다를 찾고 있다(한국관광연구원, 1997). 그리고 World Bank에 의하면 1999년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75%가 연안역에 거주하리라 예측하여 (World Bank, 1993) 이제 바다는 여가·관광의 주된 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국제 관광 선도지역을 개발하되, 국토균형개발까지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비교 우위성이 높은 남해안지역을 국제해양관광벨트화 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해안은 다도해·한려해상공원과 2,728여개의 섬 및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하나, 부산·전남·경남간 지역연계성 및 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해안과 해상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개발 및 영·호남 공동의 상징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동·서화합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의 잠재력 및 여건변화

1) 해양관광의 잠재력

(1) 광역적 연계체계의 도래

남해안은 지리적으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호연계성 높은 곳이다. 특히 경남과 전남은 해안과 해상에서의 수산업의 연계성, 남해안 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계한 교통의 연계성 등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집착되어 산업 및 관광 등 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동·서화합의 물꼬를 튼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과 지리산 주변의 동서 시·군의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동·서의 광역적 연계체계를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로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적 어려움을 타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분야에서도 동·서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추진 계획은 남해안 관광이 21세기를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계획에 따른 동·서의 광역적 연계는 해안관광의 국제경쟁력강화의 대전제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서의 관광의 물적, 인적자원의 교류, 교통의 연계성 유도, 관련부처간의 공동협력체제의 구축,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킨 실현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강조한 단계적 개발,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및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동·서화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관광자원의 연계체계의 구축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나 바다에 대한 이용과 개발은 부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해양생물과 해양자원, 해양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여가·관광대상으로서 해양을 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남해안 지역 중에서도 다도해와 한려해상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국제 관광지대로서 손색이 없으며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한반도의 “금강해역”으로 불리울만큼 수려한 해상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의 다도해지역은 유인도 347개, 무인도 1,961개를 합쳐 도서만 모두 2,308개이며, 경남은 유인도 75개, 무인도 345개가 있다. 우리 나라 해안선의 총연장은 11,542km이고 이중 경남은 2,024km (18%), 전남은 6,000km (52%)로 경남과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해안선의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는 주변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연계체계 구축의 실천내용은 남해안의 자연자원 연계 방안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도서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식생·천연기념물의 관광자원화 등이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연계방안은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로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비롯하여 시인 이은상·천상병, “산토끼”의 작사가 이일래, 민족의 애창곡인 “선구자”의 작곡가 조두남, 무용가 김해랑 등 한국문화·예술계,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보길도), 시인 김영랑, 동양화가 허백련, 판소리, 전주대사습놀이 등 남해안지역의 문화·예술의 명소로서 국제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숙박시설, 이벤트행사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동·서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

(3) 교통 및 관광시장의 연계성강화

남해안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가 연계되어 U-Type의 기간도로교통망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남의 김해·사천공항·마산항·삼천포항, 전남의 여수·목포공항·광양항·목포신외항은 해안관광벨트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으로 관광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SOC가 급속히 확충되고 있다.

따라서 남해안 관광벨트화 계획은 광역교통의 연계성 뿐 아니라 동·서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방안이 확대됨으로써,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민간여행단체의 교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해양관광의 여건변화

(1) 해양자원의 인식변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는 육지면적의 3배가 넘는 345,000km²에 달하는 대륙붕과 3,200여개의 부속도서를 지니고 약 11,542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수심 20m 내외의 해역만도 국토의 1/3에 해당되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정책은 내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양관광자원이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해양공간은 해변, 해상, 해중, 해저와 같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공간마다 특유의 환

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레저 방법 또한 다양하고 각 공간마다 다양한 느낌을 즐길 수 있어 점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서해 - 남해 - 동해를 잇는 크루저 운항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해안선을 따라 대형 크루저(3만-5만톤)가 정박할 수 있는 도크시설의 입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강산관광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시장의 확보 및 연계성 강화에 따른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2) 해양관광의 선호도변화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소득이 5천불을 넘은 이후 여가와 관광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여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근로 시간의 점진적 감소, 휴가제도의 정착, 격주근무 제도의 시행, 자가용 시대의 도래 등으로 다양한 관광과 여가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의 1인당 참가회수와 경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전체 관광활동 경험율은 90.9%로서 2001년이 되면 전체 관광경험율이 9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관광 활동 현황

(단위 : 회, %)

구 분		1984	1988	1994	1996
관광여행	1인당참가회수	3.3	2.5	5.26	6.61
	경험율		-	90.5	90.9
숙박관광	1인당참가회수	1.0	1.0	1.48	1.28
	경험율	54.4	-	68.8	64.6
당일관광	1인당참가회수	2.3	1.5	3.78	5.34
	경험율	65.1	-	79.9	81.1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7), 국민여행실태조사.

2001년까지 여가활동 참여수요의 변화는 산악형과 휴식행락형은 양적인 면에서는 많은 증가가 예상되나 그 비중은 감소할 것이고 해안형과 레저 스포츠형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안형의 경우는 1991년에 비하여 약 60%의 양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관광수요패턴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레저관광의 욕구증대로 해양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높으며, 또한 해양관광의 행태변화는 남성위주에서 여성중심의 여행 증대, 단체여행에서 개별 여행의 전환, 청·장년층 중심에서 노년층 수요 증대(호화 유람선),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체육, 오락, 휴양 등) 등 다양한 개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표 2> 자원유형별 여가활동 추정

(단위 : 천명, %)

구 분	1988년		1991년		1996년		2001년		연평균 증가율
	이용객	구성비	이용객	구성비	이용객	구성비	이용객	구성비	
전 체	290,535	100.0	324,456	100.0	417,672	100.0	529,955	100.0	5.6
산악형	115,051	39.7	124,916	38.5	155,374	37.2	192,114	36.2	4.8
해안형	45,324	15.6	51,264	15.8	66,828	16.0	86,094	16.2	5.9
휴식행락형	91,809	31.6	101,879	31.4	128,225	30.7	159,835	30.2	5.3
스포츠형	38,351	13.1	46,397	14.3	67,245	16.1	91,912	17.4	8.1

자료 : 건설부(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향후 관광의 주된 상품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새롭고 다양한 장거리 목적지 : 크루저를 이용한 선상관광
- 주문에 의한 기획상품 : 역사·문화기행, 생태탐방(조류, 해양생물, 갯벌 등)
- 모험이 있는 여행(환경, 자연, 체력단련, 오락 중 2개 이상 요소 결합)
- 일과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일정기간 휴양을 즐기는 여행

현재 레저의 성향은 산악→스키→골프→해양관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의 관광벨트화사업은 해양관광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인식될 것이다.

3) 남해안 관광벨트화 추진의 제약요인

(1) 제도적 장애요인

현재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국립공원, 청정해역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특별해역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제도적 측면에서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제약조건이 따르고 있다.

-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안전문제로 인해 일몰 시간과 일출시간에 의해 유람선이 항구로 귀항하여야 함으로써, 일출 일몰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유람선의 운항에 있어 타 시·군으로 유람선의 운항이 어렵고, 유람선이 중간기착지에 정박하지 못하고 처음 승선한 곳으로 되돌아 와야 함으로써, 해안관광지, 내륙관광지간 연계가 어렵다.
- 유람선 내에서도 관광행위 제한이 많아 단순히 해안의 전경만 관람하는 소극적인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어 숙박 및 음식제공 등의 유람선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
- 해안의 시설계획에서도 환경보호측면, 군사활동의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구간은 관광객이 해안 및 섬내부의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광기반시설의 미흡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무관심, 관광 개발여력의 부족으로 정부 및 민간기업에서의 소극적인 투자는 관광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관광시설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양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산발적 개발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다.

(3) 환경적 장애요인

환경오염문제 중 최근 빈번한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적조발생 및 해양식물·어족자원의 고갈로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래감소, 갯벌지역의 오염 및 매립 등으로 패류가 감소하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아름다운 경관이 감소되어가고 있다.

3.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방향

2000년 한국방문의 해, ASEM,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를 위한 전략적 대처 방안과 장기적으로 21세기 해양EXPO, 국제적 해양관광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해양관광벨트로 개발하여야한다. 그리고 현재 동·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공간의 다원화 전략

- 남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화 사업은 「해양관광벨트, 산업관광벨트, 환경생태관광벨트」로 다원화하여 관광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도해와 한려해상전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특유의 향토자원을 지역별로 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여 개발을 유도함

□ 공동협의체구성

- 중앙정부의 관광진흥5개년계획(권역별 관광개발계획·7대문화관광권 진흥계획), 해양관련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이 21세기의 해양관광을 주도하는 모범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 관광산업인프라구축

-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은 남해안의 물적자원인 유·무인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정해역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동·서지역의 숙박체계의 공유, 관광교통연계방안, 내륙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

□ 공동마케팅전략

- 세계관광기구(WTO) 회의를 남해안지역에 유치하여 세계관광의 주요인사들에게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공동마케팅전략」을 수립함

- 이벤트행사는 남해안 일대의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여 한려수도 700리 물길을 따라 이어져 있는 역사유적 및 선조들의 일화 등을 재현하여 동·서지역간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발함

4.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동·서 협력방안

1) 해양관광 공간구조의 다원화 전략

(1) 공간다원화 전략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시·군간의 관광협력의 인적, 물적, 행정적 협력은 부산~경남~전남으로 연계된 남해안의 벨트화 계획으로 해양관광벨트, 산업관광벨트, 환경생태관광벨트로 다원화된 전략으로 수립되어야한다.

□ 해양관광벨트

해양관광벨트는 부산 ~ 마산 ~ 고성 ~ 통영 ~ 거제 ~ 사천 ~ 남해 ~ 하동 ~ 광양 ~ 여수 ~ 완도 ~ 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도시권 연계벨트 공간을 목포·완도권, 여수·광양권·남해·하동권, 거제·통영권, 마산·진해권, 부산권의 5개권역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간별 권역에 따라 특화사업을 유도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산업관광벨트

광양만 진주권역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지대와 가덕신항만을 연계하는 two port system을 통해 남해안 산업관광벨트의 통합기능을 부여하고, 여수·광양·남해권·진사권 4개지역을 연계하는 산업 및 물류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산업관광벨트내의 구심력을 높이고, 환아시아 해협권의 첨단중심산업벨트로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식기반의 신산업축(Scientia Techno Belt : STB)인 인천 송도에 서 부산(서북~동남축), 강릉에서 목포(동북~서남축)로 이어지는 X 형태의 축과 남해안의 부산, 경남(진사권), 전남(광양), 목포로 연계되는 신산업축이 필요하다.

산업벨트에서 육성되어야 할 21세기 전략산업으로는 제철·항공·석유화학 등의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소재·정밀화학·메카트로닉스·해양생물산업·항공우주산업 등 21세기 동·서산업벨트를 관광벨트와 연계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생태관광벨트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자원 자체를 국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남해안 중 특히 관광자원의 대외경쟁력이 뛰어난 다도해 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생태관광벨트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생태관광벨트에의 추진정책은 국립공원, 청정해역, 개펄, 경관이 아름답고 리아스식해안

이 발달된 지역, 희귀조류서식지, 희귀자생식물·식물군락지 등을 환경생태관광벨트로 지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2) 권역별 공간 특화

해양관광벨트내의 권역별 공간특화는 목포~완도권, 여수~광양~남해~사천권, 통영~거제권, 마산~진해권, 부산권의 5개 관광권역으로 구분하여 특화시키고, 중복투자 조정을 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서 상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공간특화계획이 필요하다.

□ 목포~완도권

- 목포, 화원반도 등을 중심으로 한국적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지역으로 특화
- 장보고대사의 청해진, 율선도의 유배지역인 보길도 등을 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특화
- 인근의 흥도·흑산도는 낚시, 스킨스쿠버레저를 지원하는 시설 확충
- 완도에는 장보고 해양역사관, 해양전망타워, 보길도에는 조선시대의 정원문화탐방로 개발

□ 여수~광양~남해~사천권

-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해산물과 연결한 수산물관광지역으로 특화
- 남해지역은 비치형 국제휴양지역으로 특화
-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으로 경남·전남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수산물 고급레스토랑지구 개발
- 여수·광양지역은 광양의 산업관광자원과 여수 돌산관광지를 연계하는 복합해양관광지로의 개발을 유도

□ 통영~거제권

- 통영과 거제도지역을 묶어서 해양스포츠관광지역으로 특화
- 해금강 등의 관광자원과 연결한 국제연안리조트빌리지지역으로 특화
- 거제장목관광단지과 통영미륵도 관광특구는 요트, 수상스키, 낚시레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건설 및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 거제 포로수용소와 외도해양관광섬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거제 여차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해양스포츠센터 조성
- 가덕신항만과 연계하여 해상과 해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거가대교(거제~가덕)를 장목관광단지, 남해안관광일주도와 연계한 자동차드라이브 코스로 특화

□ 마산~진해권

- 군항도시인 진해를 중심으로 해군사 박물관과 군함박물관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해군관광도시로서 역할을 부여함
- 진해 군항을 중심으로 국제적 해군 이벤트행사를 통해 세계해군사관생도의 집결지로 유도 (세계해군 관함식, 해군 군악대 경연대회 등)
-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거북선의 화익진법 재현, 백의종군 행로 견학 등 해

상이벤트 개발

- 마산항 개항 100주년과 연계한 세계상선축제, 이은상선생의 가고파 축제 등 예술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함. 상업 물류중심의 관광도시로서 기능을 부각시킴

□ 부산권

- 부산은 현재 성공적으로 개최된 영상문화 이벤트중심의 관광권역으로 특화하고, 기존의 해운대, 태종대, 동백섬 등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함
- 가덕신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거가대교(거제~가덕)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와 연계하여 지역간 연성관광의 효율화를 극대화함
-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관광시장의 관문적 역할을 부여하고 고급 숙박시설의 공유체계를 활성화시킴

2) 협의조직체 구성

(1) 관광행정협의회 조직 및 주요기능

□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의 대상 행정구역은 개별적 행정기관의 수비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적 행정지원체제의 구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관광벨트화 사업에 필요한 광역행정체제는 사업의 성격상 단순히 동·서 지역간 연결창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공간다원화 전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해안관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지역의 물리적 시설형태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의 연계와 비용, 운영, 보상 등 토지이용에 따른 갈등의 완화, 중복 행정서비스의 방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통일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구성

우리 나라에서 광역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무의 위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방식은 수도권의 김포 매표지 쓰레기 공동처리가 유일한 사례이며, 대부분 중앙기관의 일선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사무위탁방식은 단일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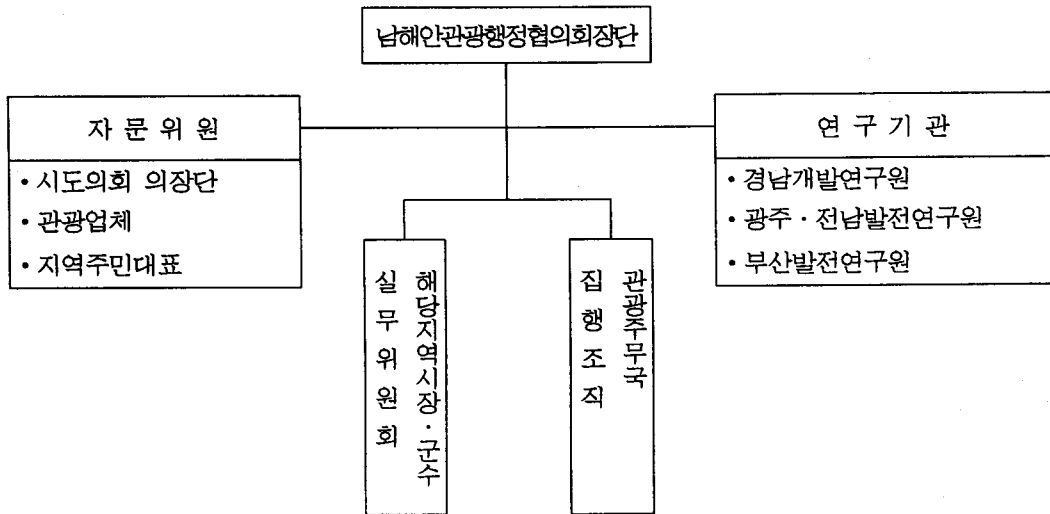
따라서 본 과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해안관광 협의회의 조직형태는 사무를 공동으로 관리,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의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칭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에는 협의회장단, 실무위원회 및 집행조직을 둔다.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의 참여기관은 경남·전남·부산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각 시·군이 된다.

협의회장단은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공동회장단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에는 각 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중 각 1인을 실무위원장으로 선정한다. 또한 광역행정협의회의 집행조직은 회장단 3개 기관중 매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해당광역자치단체 내에 관광주무국이 집행조직이 된다.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는 각 지역의 시도의회 의장단을 참여시켜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예산결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 관광관련 업체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수 등을 협의회의 자문역으로 참여케한다.

<그림 1>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구성(안)



□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의 주요 기능 및 운영

남해안 관광행정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동시설 및 투자결정, 재정부담결정,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한 공동대표권 행사 및 남해안 관광벨트화 공동 프로젝트 등이다.

첫째, 공동시설 및 투자는 권역별 특화와 다원화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

둘째, 각 지역의 재정부담은 개별 자치단체가 각자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응익원칙에 의한 부담원리를 적용한다.

셋째, 중앙정부에 대한 통일된 의견 개진, 공동사업 및 홍보 추진, 공동 외자유치사업 추진 등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행정협의회가 각 개별 자치단체에 우선하는 대표성을 갖도록 한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체(가칭 [2002년 월드컵 개최지역 관광촉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넷째, 경남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구원으로 하여금 공동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한다.

(2) 제도적 지원방안

□ 국제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토록 국립공원구역의 조정,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민간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확보, 어업권보상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특별법제정이

필요함

- 외국 관광회사의 투자유치와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으로 추진하고, 시설투자부문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
-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확보, 어업권 보상 등을 정부에서 대행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 강구
- 관광개발프로젝트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조직을 강화
- 남해안 관광벨트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민·관의 새로운 협력체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3)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행정자치부 : 해양도서지역의 개발사업연계
- 환경부 : 해상국립공원의 환경·생태관광상품개발(환경보호와 관광의 상호조화)
- 국방부 :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지역내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객의 출입제한 완화.
- 해양수산부 : 관광유람선의 고급화 운항코스확대,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 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호텔 허용.
- 문화관광부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강화.

3)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은 숙박 및 관광시설구축, 관광교통망구축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체계화됨으로써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이 극대화될 것이다.

(1) 숙박체계 및 관광시설의 공유

관광권역별 거점역할을 하는 국제해양관광 숙박시설을 개발하여 숙박시설과 관광시장의 공유화 유도가 필요하다. 숙박은 선박을 이용한 선상숙박, 해안지역의 민박마을을 자원화한 남해안 특성을 부각시킨 숙박시설, 기존의 온천 숙박시설과 남해안관광지를 연계하여 숙박 유형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 고급숙박시설은 세계적인 체인망을 확보하여 선상국제회의 유치, 해외교포방문단의 유치,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숙박공유체제 협의를 통해 해외관광객 숙박 활성화를 유도함
- 민박마을은 해안에서 갯벌생태체험, 어로 등의 체험과 연계된 숙박시설로 활성화시킴
- 학생의 수학여행단, 일반인 여행시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동·서지역 상호간에 제공하여 관광의 인적교류를 유도함
-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자체가 큰 매력이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며 다도해·한려해상지역을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여수·남해지역을 중심으로 동·서화합의 장으로 개발함

(2) 관광지간 교통연계방안

□ 해양과 내륙연계 package화

- 지방정부간, 도시간 교류가 보편화됨으로써, 인접 시·도의 해양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내륙관광자원과의 교통연계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함
- 국토의 U자형 발전축상에 위치한 경남과 전남은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충이 양호한 지역으로 내륙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함
- 섬진강 주변지역을 동·서화합의 관광 교류지역으로 특화하여 지리산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특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축제를 추진함. 특히 광양 하동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산권과의 관광체계를 구축함
- 해안 관광지와 내륙관광지간 동·서연계 방안은 고흥해안과 조계산, 여수해안과 백운산, 하동·남해안과 지리산, 사천해안과 진양호, 고성해안과 연화산, 부산해안과 동래산성 등을 해양관광벨트와 연계체계를 구축함
- 주제별 관광지 연계방안으로 사명대사유적지 연계, 창녕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 하동 화개장터 및 최참판댁 복원사업, 윤선도 유적지연계, 해남 땅끝마을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함

□ 교통연계체계

- 해안교통체계의 연계방안은 마산을 기점으로 하여 하동까지 건설중인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를 광양-여수-순천-목포해안까지 연장하여 지역간 관광교통망을 확충함
- 남해안고속도로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연계도로를 정비·확충하여 해안과 주변관광지가 30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교통망체계를 형성함
- 남해안의 항만과 공항 그리고 육상교통이 연계되는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광장을 조성하여 지역내외에 우수한 관광자원, 역사·문화자원의 연계를 강화함
- 관광권역의 배후 모(母)도시로서의 기능과 동·서화합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여수·광양, 하동·남해를 선정하여 지역간 육상·해상 연계교통망을 확충함
- 관광지와의 접근성 증대와 관광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유람선과 자동차가 연계될 수 있는 Park Station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함
- 기존의 사천, 김해, 여수, 목포공항과 연계 및 주요 관광지간 항공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며, 주요 관광지간의 관광헬기루트를 개발함
-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거제장목관광단지과 미륵도 관광특구를 거점으로 하는 섬일주 요트관광코스를 개발함
- 다도해를 중심으로 선상 및 갯바위 낚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낚시관광코스를 개발함

4) 공동마케팅 전략

(1) 남해안 관광 이벤트 릴레이

이벤트의 활성화는 관광목적지의 매력도를 제고, 비수기극복 및 수익증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행사를 유치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국가 및 도시에서 이벤트유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해안지역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서지역간의 차별화된 향토 문화를 이벤트화하여 남해안국제관광상품화 전략이 필요하다.

<표 3> 이벤트 전략

구분	경남	전남
해상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거북선의 화익진법 재현 등 해상이벤트 개발 · 진해 군항을 중심으로 국제적 해군 이벤트 행사를 통해 세계해군사관생도의 집결지로 유도 (세계해군 관함식, 해군 군악대 경연대회 등) · 마산항 상선제 · 통영~거제권 국제 해양레포츠대회 개최, 청소년,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여름축제, 전국낚시대회 등의 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옛 영광을 재현한 해상이벤트개발(예 : 피터팬의 동화와 관련된 해적섬멸에 관한 이벤트 등) · 여수에서 개최되고 있는 거북선대축제와 통영의 한산대첩제와 연계한 이벤트 개발 · 새해 해돋이와 더불어 한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기원제 등 참가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 개발
소리문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풍어제, 당상굿놀이 등의 놀이소리를 남도소리로 집대성하여 이벤트를 기획 · 가곡과 축제, 가요제(남인수, 박시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소리와 연계하여 춘향가, 심청가, 진도 아리랑 등의 소리를 남도소리문화로 이벤트로 기획함 · 전국관소리명창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토산품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의 나전칠기 축제, 김해의 가야토기축제와 하동진교 사기마을(일본)과 같은 해안지역의 어업관련 토산품을 주제로 한 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의 도자기 축제, 강진의 청자문화제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토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음식문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 지역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축제를 기획(김치, 젓갈, 생선요리 등 주제별 음식 맛보기, 가족대항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등)하여 동·서수산물 축제 기획 ·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도시의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해산물을 이용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방문객이 지역특유의 음식을 맛보고 싼값에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획 · 국제적인 음식축제를 기획하여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벤트로 개발
천연기념물 및 신비의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 얼음골·팍홀리는 비각, 고성공룡발자국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 및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모세의 기적인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 백조도래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흥도를 활용하여 자연의 신비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개발
꽃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려수도 동백축제, 진해군항제 등 군집화된 꽃길을 보는 이벤트에서 벗어나서 박람회 형식의 이벤트 개발 · 지리산 철쭉(창꽃)제, 덕유산 단풍을 연계한 동·서화합의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노고단 철쭉, 장성 백양 단풍, 광양시 매화 등 계절별·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통합하여 계절적으로도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

<계속>

구 분	경 남	전 남
생태체험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포늪을 활용한 습지생물 탐사, 남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해저를 관람할 수 있는 해양생태 탐사 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포 개펄축제를 활성화하여 관광객이 직접 개펄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개펄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생활사가 전시된 생태탐사관 등을 개설
역사·문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명대사통신사 행렬재현, 이순신장군 백의종군행로, 의병제전 등 구국충신을 주제로 한 참여형 이벤트 개발 거창국제연극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유치(국내·외 해안지역의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의 페스티벌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인박사추모제, 강강술래향토문화제 등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벤트 개발 세계해저유물전을 기획하여 해저유물을 통한 선조들의 해상활약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개발

(2) 관광홍보 전략 및 관광상품개발

- 남해안 관광벨트내의 향토축제에 외국자매결연도시의 관광방문팀을 유치하여 동·서교류방문축제를 홍보함
- 경남과 전남의 국제해양관광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국제관광여행단체 유치, 동·서 해외자매결연도시 홍보, 경남과 전남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자매결연도시 교포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함
- 관광안내체계 방안, 안내관설치, 홍보물제작 등을 동·서간 공동협력으로 개발하여 동·서 지역간의 관광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함
- 인터넷, TV, 케이블 방송, 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은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 관광벨트 홍보 사이트를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
- 남해안 일대의 개펄자원을 활용하여 수산물채집관광, 미용관광상품 등을 적극 개발

(3) 크루저 및 헬기투어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해상크루저 및 헬기투어를 유도한다. 특히 헬기투어의 경우 하늘에서 본 남해안의 전경은 물속에 壽石으로 수를 놓은 듯하여 해양투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 지역의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남해안 해상유람선 코스를 개발하여 남해안이 외국크루저선사들의 순환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코스는 한려수도 700리, 제주도 흥도를 잇는 서남해안 코스,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동해안코스를 개발한다.
- 국외코스는 일본, 러시아, 중국을 잇는 환동해권 크루저코스, 싱가포르, 대만을 잇는 동남아권, 유럽과 미주를 잇는 코스를 개발한다.
- 헬기투어는 주변관광지(운천, 골프장, 지리산, 등)와의 연계를 극대화시킨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21세기는 해양관광의 신지평을 여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서 해양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최근 해양관광은 전세계적으로 신관광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양, 도서지역은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와있다. 수심이 얇은 연안, 섬과 섬사이, 해변 등은 미래의 공간자원이므로,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제2의 국토공간개발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간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이루어져야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추진은 산발적, 부분적 개발을 지양하고 남해안 전지역에 걸쳐 해양관광벨트, 산업관광벨트, 환경생태관광벨트로 공간의 다원화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한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영·호남 공동의 협의체에 의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계획이 지역종합계획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발전효과 극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광주·전남개발연구원(1998), 광주·전남보고서.
- 경남개발연구원(1998), 경남21세기, 경남개발 Vol 35.
- 내무부(1996), 한국도서백서.
- 한국관광공사(1997),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1992), 지방화시대의 관광정책.
- 한국관광연구원(1997), 국민여행행태조사.
- 한국관광개발연구원(1997), 한국관광연감.
- 한국법제연구원(1998), 대한민국헌대법령집, 제34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4), 해양도서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 World Bank(1993), Guide Line for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for Distribution to the Coast Conference.